

“지자체 첫 컬러마케팅... ‘엘로우시티’ 장성 발전 기틀 다져 뿌듯”

유두석 장성 군수에 듣는 올해 군정 성과

장성군은 올해 여러가지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대성공,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곡차곡 결실을 맺었다.

공공실버주택을 짓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등 살기좋은 장성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한 해이기도 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쉽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올 한해 장성군의 주요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황룡강에서 개최한 축제 ‘노란꽃잔치’는 ‘대박’이 났다.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총 98만 734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연휴 때도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으니 10월 한 달간 약 120만명이 다녀간 셈이다.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축제라는 입소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황룡강에 20만㎡(6만평) 규모의 꽃 정원이 조성됐다. 한국에서 가장 긴 ‘꽃강’을 만들었다. 장성의 보물인 황룡강엔 누런 용이 살면서 지역을 수호했다는 전설이 있다. 황룡강의 숨은 전설을 꺼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점도 흥행 요인이 됐다.

-원래 황룡강은 볼품없는 강 아니었다.

▲황량하고 잡초만 우거졌던 황룡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게 쉽지 않았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넓은 황룡강에서 어떻게 꽃 축제를 여느냐’며 반대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주도 올레길을 개발한 서명숙 전 시사저널 편집장이 느꼈던 고뇌를 실감했다. 그 역시 무수한 반대를 뚫고 올레길을 추진했다. ‘거버넌스’의 위대한 힘을 믿고 황룡강에 노란 꽃을 심었는데 다행히 축제가 성공해 내 체면이 살았다. 여행 작가나 축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축제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적 효과는 어땠나.

▲동신대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총 265억5569만5160원의 직접경제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축제에는 처음으로 쿠폰제를 도입했다. 1억3723만원 어치를 팔았다. 실제 매출이 쿠폰 판매액의 약 5배 가량이니 지역 음식점도 대박을 맞은 셈이다. 축제 때 음식점 사장님들 얼굴이 환해지셨다.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라는 독특한 컬러마케팅을 벌이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누런 용의 전설을 갖고 있는 장성은 노란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다. 장성은 누런 용과 노란색을 접목해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컬러마케팅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착안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황룡강을 전국 최고의 명품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노란꽃잔치’ 흥행으로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날개를 달았다.

-대형 숙박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도 유치했다.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은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됐다.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는 민선 6기 행정의 최대 성과이자 장성의 미래를 바꿀 장성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황룡강 노란꽃잔치 120만명 방문 대박 공공실버주택·농기계임대사업 등 호응 편백힐링특구 지정 휴양·치유벨트 개발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장성 미래 바꿀 것

현재 국내에는 전국 11곳에 대학병원 부설 형태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있는데, 국립심혈관센터가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진원·남면 노노산입단지 인근에 있는 10만 평가량 부지에 예상 사업비 약 3500억을 투입해 연구, 학술, 치료, 재활을 총괄하는 종합 의료기관을 짓게 된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다. 한국에선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이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조기경고와 식습관 서구화 등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이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심혈관질환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연구 및 치료센터는 없는 실정이다. 국립심혈관센터를 통해 한국인들의 각종 암을 종합적으로 연구 및 관리하는 것과 대비된다. 국립심혈관센터가 설립되면 뇌심혈관질환이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10년 전인 민선 4기 때부터 정명호 전남대 의대 교수와 함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추진해왔다.

-국립심혈관센터에 왜 호남, 그 중에서도 장성에 짓는 것인가.

▲현재 충청 오송과 대구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지만 호남에는 의료 클러스터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해 전국에 ‘의료 삼각벨트’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

다. 장성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나 전남대 의대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있어서 인재 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또 공항, KTX,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도 완벽하다. 또 인근에 노노산입단지과 광주R&D특구를 비롯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다. ‘치유의 숲’ ‘힐링 숲’으로 불리는 축령산에 재활과 치유 기능을 담당하는 분원도 설치할 수 있다.

-장성군엔 장수하시는 어르신이 많지 않나.

▲지난해 기준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 국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전남 서북부 행복생활권 치매전문 거점센터를 비롯해 실버복지 시설을 완벽하고 있는데다 ‘효도권 사업’과 ‘토방 낮추기 사업’을 비롯한 독보적인 실버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실버복지 1번지’로도 불리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공공실버주택 대상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렇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갔다. 독거세대와 부부세대가 모두 거주할 수 있는 25㎡(90세대)와 35㎡(60세대) 두 가지 형태로 짓고 있다.

건강이 안좋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주택에서 지내기엔 많은 애로가 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실버주택이다. 어르신들이 공중재를 이뤄 함께 살면서 건강관리, 의료, 취미생활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최첨단·친환경 실버복지 아파트다. 간호사실에서 취미실, 찜질방, 식당, 건강관리실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모든 복지 및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인들도 많다. 올해 농업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촌 일손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 군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비산 농기계를 선뜻 구매하기 힘든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중부권 분소를 시작으로 서부권 분소에 이어 올해 북부권 분소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했다. 장성군 전체 3대 권역에서 농업인 누구나 농기계를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자부한다.

-뛰어난 농업정책을 통해 올해 큰 성과를 받았다고 하던데.

▲‘2017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 군은 농촌진흥사업 추진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는데 특히 쌀 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선진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성 하면 축령산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축령산은 정부로부터 ‘편백힐링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편백힐링특구’ 지정은 장성의 편백나무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축령산을 중심으로 서삼면 모암면 일대 약 325ha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국비 7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축령산 개발을 포함한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이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과 함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림청은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0억원을 투입해 산림 치유시설·공간을 확충·개선한다. 우리 군과 산림청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축령산은 전국이 주목하는 복합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CCTV 관제센터 내부.

장성이 더 안전해졌다

이상음원 자동 탐지 지능형 CCTV 시스템 16곳 설치

범죄·재난 등 신속 대응

장성이 더 안전해졌다. 이상음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지능형 CCTV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다.

장성군은 기존 CCTV에 이상음원 장비를 설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스템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침입, 화재, 폭력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경보를 울리고 비명, 폭발음 등 범죄나 재난 시 발생하는 음원에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됐다.

범죄 현장에서 발생한 소리나 화재로 인해 폭발음 등을 탐지, 자동으로 위급 상황이 관제센터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영상 및 음원 데이터를 축적할수록 사건·사고 대응력이 향상, 보다 촘촘한 탐지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갖췄다.

장성군은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센터에서 즉시 사건·사고를 파악, 범죄나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381개소에 설치된 616대의 방범·어린이 안전·재난 감시용 등 CCTV 중 범죄 취약지, 주택 밀집 지역, 골목, 공원을 중심으로 16개소에 우선적으로 이상음원 탐지 장치를 도입했다.

장성군은 6개월가량 지난 뒤 범죄 예방 및 사건 처리 자료를 분석해 설치 장소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범죄 예방 효



장성군이 최근 CCTV에 설치한 이상음원 탐지 장치. CCTV 영상을 분석해 화재, 폭발, 재난 사고에서 발생하는 음원을 탐지해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됐다. (장성군 제공)

과를 확인하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상품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해외여행·국내여행
- 할인항공권·KTX기차표
- 허니문·단체여행
- 골프투어·기차여행

www.daewontour.com

겨울 전세열차 상품 <small>1인 이상 출발</small>	① 울산 간절곶 새해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12월 31일(일)	99,000원
	② 정동진·월정사·휴휴암 기차여행(무박 2일)	1월 05일(금)	120,000원
	③ 태백산 눈꽃축제·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④ 정동진 일출·하이원스키장 관광 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정기열차 상품 <small>최소 출발인원 확인</small>	① 남이섬 자유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② 대둔산 케이블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75,000원
	③ 남해 보리암·독일마을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④ 서천 국립생태원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⑤ 서울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08,000원
	⑥ 정동진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20,000원

섬여행 상품	① 흥도·흑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② 울릉도·독도 여행(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③ 거문도·백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④ 청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⑤ 백령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55,000원~
	⑥ 대마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90,000원~

버스여행 상품	① 고령 고분군 트레킹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② 날뚝보소 밀양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30,000원
	③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운행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50,000원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지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광주본부 울산광역시